

“고려사원은 정치·군사적 공동운명체”

“고려 사원이 본래의 종교적 기능을 벗어난 군사적·정치적 성격을 가진 것은 국가에 대해 공동운명체 의식을 가지고 활동했기 때문이다.”

김정은 기자

윤회의 주제

남종선과 북종선

돈오점수와 돈오돈수

“사상 논쟁 통해 불교발전”

2500여년의 장구한 역사를 갖는 불교가 전파·전개되는 과정에서 토속적 사상과 부딪치며 일어난 논쟁, 또는 사상적 변천에 따라 일어난 내부 논쟁은 서로 다른 견해의 대립과 갈등을 통해 발전을 모색하고, 불교의 사상을 더욱 풍부하게 발전시켜 오고 있다.

윤회의 주제를 둘러싼 논쟁 ‘유아(有我)와 무아(無我)’에서 이거동씨(동국대 강사)는 “힌두교와 불교의 유아·무아 논쟁은 상대방에 대한 비판에 초점이 있다기 보다는 이러한 비판을 통해 자신의 선자리를 확인하는 데에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다.



1990년 10월 송광사에서 열린 돈오돈수와 돈오점수에 대한 국제학술회의. '깨달음과 뒤꿈'에 대해 열린 토론이 진행되었다.

‘논쟁으로 보는 불교철학’ 출간

11개 주제로 불교사 전반 고찰 ‘대립·갈등은 자기반성 기회’

다. 북방 중심의 불교 사상을 중심으로, 8명의 소장파 학자들이 고정되어 고찰·변천·적응을 놓고 전개되는 ‘윤회의 주제에 대한 논쟁’, 중국 선종사에서 선종의 대세를 결정하는 중요한 결과를 도출한 ‘남종선과 북종선의 논쟁’, ‘돈오점수 돈오돈수 논쟁’ 등 현재까지도 학계에서 거론되고 있는 논쟁들을 집중 조망하고 있다.

박해당씨(경희대 강사)는 ‘격의 불교와 승조의 공사상’에서 중국 초기불교의 공에 대한 이해를 통해 중국의 불교수용기에 제기된 중국 전통사상과의 논쟁들을 고찰하며 ‘공 사상이 중국이 받아들인 대승불교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임을 인정한다면 중국불교는 승조에 의해 비로소 올바른 길에 들어서게 되었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

했다. ‘남종선과 북종선의 논쟁’에 대해 김명옥씨(가산연구원 책임연구원)는 “남북 선종의 논쟁은 단지 대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증시하는 중국인의 형제와 사유구조에 맞도록 선법을 변화시킨 계기가 되었다는 점”이라며 “돈오점수와 돈오돈수의 사상적 대결과는 별도로 세간을 벗어나지 않고 현세의 삶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측면으로 발전한 것에 그 핵심을 엿볼 수 있다”고 밝혔다.

능과 깨달음을 바라보는 지혜와 성찰스님의 시각 대비를 통해 ‘지혜의 돈오점수와 성찰의 돈오돈수’는 다툼을 소홀히 하는 사람들을 견책하기 위한 주장이라는 점에서 일치한다”며 “서로에게 사상의 폭을 넓혀주는 자양분 구실을 하여 현대의 우리를 환기시켜 준다”고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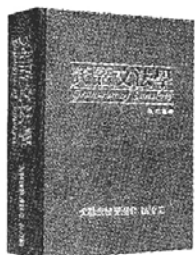
김정은 기자 (jekim@buddhapia.com)

‘범어문법학’ 나왔다

발음·문법·문장론 등 다뤄 범어-한글사전도 수록



전재성씨



인도사상과 불교를 제대로 알기 위해 범어 이해는 필수적이다. 근본불교의 성전인 빠알리대장경이나 대승불교의 성전인 사장대장경과 한역대장경, 그리고 대장경으로 성립되지는 못했지만 중요한 경전들과 논서들로 이루어진 범어불전 등은 넓은 의미에서 불교 성전어인 범어에서 유래되었거나 번역된 것이기 때문이다.

법책을 출간했던 전재성씨(한국빠알리성전협회장)가 쓴 이 책은 ‘범어문법학 입문’ ‘기초 범어문법학’ ‘범어문법학 각론’ ‘범어사전부’ 등 총 4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록으로 범어 약어표를 수록하고 있다.

리가 흔히 접했던 영문법과 같이 범어에 대한 기초 문법을 설명해 놓았다. 3부 범어문법학 각론에서는 음성론, 연성법칙, 일반 격변화의 원리, 문장론 등을 다뤘으며, 4부 범어사전부에서는 범어 한글사전과 한글범어사전, 범어 어근사전을 수록해 사전적 기능 외에도 어휘력을 늘릴 수 있도록 배려했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스펠링 안무 ‘울동에서 찾는... 만다라 춤 美서 인기’

꽃 위싱턴 볼커엔예술극장에서 명상과 만다라를 소재로 한 무용이 대중적 관심을 일으키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지가 보도했다. 꽃 무용계의 대표적인 안무가 머리 스펠링씨가 5년간의 침묵을 깨고 무대에 올린 춤의 주제는 ‘울동에서 찾는 만다라(Mandala In Movement)’. 10여년동안 명상수행에 몰두해온 스펠링씨는 최근 만다라의 형상에서 영감을 받아 4명의 춤꾼들이 형상화된 춤을 선보이며 만다라를 상징하는 다섯 개의 원을 그리는 기하학적인 춤을 안무했다.

유엔, 베트남 종교현황 조사 불자 7천8백만명 추정

베트남에 공산정권이 들어선 이후 처음으로 유엔의 종교 관련 특별조사관이 7월말경 입국, 베트남의 종교 현황을 조사한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특별조사관 압델레타 아모르씨는 이번 조사를 통해 종교분포, 종교활동, 종교인사 탄압 사례 등을 밝힐 예정이다. 베트남 정부는 지난 10여년간 자유 경제체제를 도입하며 자유시장을 개장하는 등 정치·사회적 규제가 예년과 비교해 완화됐지만, 종교문제만은 여전히 뜨거운 감자로 남아있다. 베트남 정부는 “국가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종교단체 활동 제한은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같은 억압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불교 신도수는 현재 7천8백만여명으로 주요 종교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중욱 기자

부다피아 사이버 기행

다이아몬드웨이 불교센터

뉴욕에 자리잡고 있는 다이아몬드웨이 불교센터(Diamond Way Buddhist Center) 17대 칼마파의 씨에 도제와 레임을 니달이 이끄는 티벳불교의 칼마 카규(Karma Kagyu) 파가 운영하고 있는 불교 센터. 이 센터에서 관심을 끄는 것은 라마승을 니달의 영향력이다. 그는 제16대 칼마파의 최초의 서양인 제자로서 불법을 서양인들 정서에 맞추어 재해석하고 현대화하는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였다. 그는 불교가 서양인들 일상생활 깊숙이 자리잡아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생활종교가 되도록 불교의 생활화에 눈을 돌리는 등 서양인들에게 불교의 문턱을 낮춘 인물로 인정받고 있다. 올은 캄파파로부터 불법을 널리 알리라는 개인적인 요청을 받은 후 서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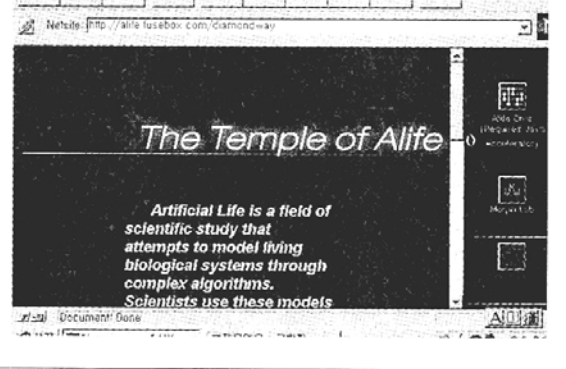
를 뜻하는 ‘Lineage’는 티벳 불교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개념 중의 하나이다. 칼마파란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칼마의 대승을 지칭하는 용어로 자비심에 가득 찬 티벳 성자인 헤안(Chenzig)의 구원체이다. 칼마파는 부처님의 모든 공력을 구체화한 대사이며 석가모니 부처님과 구루 린포체에 의한 이미 예언된 바 있는 존재이다. 칼마파는 티벳 최초의 ‘라마’이며 지난 8백여년 동안 ‘살아 계신 부처님’으로서 또한 정신적인 지주로서 한반도 계승이 끊이지 않고 있다. 모든 칼마파는 죽음을 맞이 전에 자신의 후생에 어떠한 모습으로 태어날지 미리 불교를 통해 미리 알게 된다는 자제하게 적어 놓는다”고 한다.

티벳불교 칼마파서 운영 서구 생활불교 정착 한몫 초심자 교리교육 등 지원

의 거의 모든 나라를 순례하면서 전세계에 티벳불교를 알리는데 헌신했다. 다이아몬드웨이 불교센터 사이트에서는 티벳불교의 특징을 알 수 있는 티벳불교와 칼마파종(宗) 개관 티벳불교 문화·시(詩) 티벳어 진언 스승 교행사 소개 티벳불교용어 정리 티벳 동부 불교계 소식 스승 주 명상 프로그램 등의 주요 정보를 제공한다. 다이아몬드웨이 불교센터가 특히 중요시하는 활동이 바로 불교에 갖 입문한 초심자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이다. 이들에게 지속적인 교육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매주 한반씩 정규적인 모임 유도체 티벳불교의 정통 교리를 이수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도 이 종파에서는 위대한 스승을 탈쿠스(Talkus)라고 부른다. 이것의 의미는 수행자가 자아의 온갖 허황된 환상과 환영을 초월한 뒤, 이 지상의 모든 존재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인간의 모습으로 환생하였다는 대승을 의미한다. 이외에도 이 사이트에서는 금강승(Vajrayana)이라고 알려진 다이아몬드웨이 불교의 수행법과 연구 성과를 열람할 수 있으며 초심자들의 교육 과정도 제공한다. 다이아몬드웨이 불교센터가 특히 중요시하는 활동이 바로 불교에 갖 입문한 초심자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이다. 이들에게 지속적인 교육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매주 한반씩 정규적인 모임 유도체 티벳불교의 정통 교리를 이수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http://alife.fusebox.com/diamondway 오중욱 기자 (gobaou@buddhapia.com)



대한민국 성씨대보총람 IMF 긴급자금조달 특별할인판매. 읽기 어려운 한문족보를 대한민국 275성씨별 3,349본관별 대동보(大同譜)·세계보(世系譜)·파보(派譜)를 알기 쉽고, 찾아보기 편하도록 한글 중심으로 집필.

현대의 지식인들은 무식해질 필요가 있다!!! 꿈에서 나는 이와같이 들었다 I II III. 최정상 불교인 법학사상의 전모와 진수. 우리가 마음 공부하고 수행을 하는 것은 무식으로의 여행이다.